

150805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다섯번째 5:1-28

1-11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

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자에게 재림은 돌연히 임하지만(1-3)

항상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실 것이므로

결코 돌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(4-5)

따라서 성도들은 재림의 시기를 모른다고 하여 방관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이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(6-11)

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영적 지혜로움이 성도에게 절실히 요구됨

12-22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 생활에 대한 교훈

재림을 전제할 때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 먼저 영적 지도자인

감독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며,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겸손으로써

이웃과의 화평을 유지해야 함을 교훈(12-15)

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는 항상 기쁨 가운데서 기도에 힘쓰며 감사함으로써

성령 충만한 삶을 힘써야 함을 교훈(16-22)

3대 실천 강목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

23-24 바울의 마지막 기도

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의 강림이 이루어져 역사의 종말이 되는 그 순간까지 성도

들의 영육을 거룩하게 지켜 주실 것에 대해 간구 -

이제까지 바울이 교훈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행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

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바울의 성숙한 판단에 입각한 기도

25-28 끝맺는 말